

광주시·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 깐깐해졌다

올 초 도입... 지역기관장 기준 제시 공직사회 새바람

과거 행적·도덕성 등 검증해 추천권자에도 '압박'

올 초 도입된 광주시·전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지역 기관장의 임명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여론을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지역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에도 과거 행적, 도덕성, 수행 능력 등이 청문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대상자는 물론 추천권자에게도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 선거 공신이나 측근, 지인 등이 별다른 검증 없이 임명됐던 과거 관행에도 제동을 거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역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늘리고, 청문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올 초 광주시, 전남도와 각각 협약을 거쳐 광주도시공사 등 광주시 8개 기관, 전남개발공사 등 전남도 5개 기관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행 초기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장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각 기관마다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기능이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횡수를 거듭하면서 안정돼 가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계속되면서 기관장의 '자격'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3월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내정자에 대해 청문회를 갖고 '부적격' 의견을 제시, 결국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었다. '사전내정설' 논란이 제기된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내정자는 가까스로 문턱을 넘어 임명됐으나 광주복지재단의 초대대표로 지난 21일 청문회에 나선 엄기욱 내정자는 위원들이 논문 자기표절에 반사국선언 경력까지 지적하면서 임명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전남도의회 역시 지난 7월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남복지재단 내정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됐으나, 전남도가 수행 능력 측면을 인정해 임명한 바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지방의회에서 개최되는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과거 행적만을 파고들기보다는 직무 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기관장을 맡을 만한 인재풀이 크게 부족한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지나친 과거 검증이 오히려 '무능력자'의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듯하다"며 "앞으로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살피는 정책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노력과 함께 기관의 성격에 따라 검증할 분야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백운광장, 패션·유통 아우르는 문화공원으로"

활성화 방안 토론회서 제시

광주 남쪽의 관문인 백운광장을 문화·패션·유통을 아우르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준 동신대 교수는 22일 비전포럼(이사장 김성운) 주최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백운광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푸른길 공원과 광장의 교통성, 주변 소공원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백운 고가도로 철거 뒤 백운광장 활성화 방안으로 "5거리 교차로의 중심센터가 될 백운광장은 교통소통의 중심기능과 함께 광장의 중심에 분수 조각탑 건립,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지하보도 설치, 청소년 문화특구 지정, 상업지역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고 제안했다.

함께 주제발표에 나선 노경수 광주대 교수는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대체 도로를 만들자는 것은 남구민은 물론 광주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며 "도시철도 2호선과 병행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하차도를 먼저 착공하고 나중에 2호선 역사(驛舍)가 들어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운태 전 시장과 최영호 남구청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 전 시장은 축사에서 "백운광장이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패션·상업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설계를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방차 갑니다 길 비켜 주세요"

광주시 소방본부, '출동 알림시스템' 개발 나서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전국 최초로 '소방차 출동 알림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22일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분야에서 사용되는 근거리 무선 단말 신호전달 시스템인 비콘(Beacon) 기술을 활용해 소방차에서 신호를 보내면 주변 일반 차량 내부에서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는 이른바 '파비콘(Fire-Beacon)'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소방본부 측은 신호 도달 거리가 50m인 기존 비콘 기술을 최대 300m까지 늘린 계획이다. 신호 거리가 넓어지면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을 앞서 가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주변 자동차에 충분히 알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방차에서 보내는 신호를 상

대방 차량이 받아야 하는 데 이 수신기를 자동차에 다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일반 차량의 음성안내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라디오와 연계하거나 수신기와 스피커가 내장된 별도 기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아예 출고하는 자동차에 이 수신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22일 "IT 전문업체 '씨온드림'과 공동으로 파비콘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이라며 "일부 기술적인 문제가 보완되면 조만간 시제품을 만들어 현장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초대원장 하기 어렵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소속 시·도의원들이 22일 전남도의회에서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 초대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운영 비전 미흡·특혜성 전관예우 등 도마위 올라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22일 열린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광주·전남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통합연구원 운영 비전 미흡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2일 전남도의회에서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행자부 장관 퇴

임 이후 입주한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5000만원으로 신고돼 당시 시세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지난 10년동안 종합소득세 3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면서도 지난 2012년 인터넷 신문사를 만든 이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허위 해명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택 광주시의원은 "광주전남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원 통

합 이후 3년 안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며 "지역 연구원장 직은 대개 퇴직한 관리들이 재취업 차원에서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광주전남 연구원은 현재 실무형 원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최대식 전남도의원 등이 "광주·전남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광주는 비교적 알고 있으나 전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 조오섭 광주시의원 등이 광주 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묻는 질문을 하자 "내부 소통을 강화하는 등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직 퇴직 후 특혜성 전관예우 등의 과거 전력도 쟁점이 됐다.

청문위원회는 23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어서 최종 임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허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곧바로 10월 초순에 연구원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광주시의회 박춘수·임택·조오섭·주경남·이정현 의원이, 전남도의회에서는 강성휘·우승희·최대식·김태균·서동욱 의원이 위원으로 나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中 방문 이낙연 지사, 저우산시와 섬개발 공유

중국 저장(浙江)성을 방문중인 이낙연 전남지사가 저우산(舟山)시와 섬개발 정책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지사는 세계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닝보(寧波)저우산 항만공사와 전남의 항만공사가 협업체를 구성, 중국 최초의 해양경제특구인 저우산군도신구 발전전략과 전남도의 해양항만발전정책을 공유하며 상호협력하기로 제안, 양 지자체가 실무적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1일과 22일 이 지사는 저우산시와 닝보시 고위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해양수산분야 협력강화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낮에는 저우산시 중다(鐘達)

의장, 광징화(方敬華)부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닝보시 루즈위(盧子巍)시장과 간담회에 이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섬·해양항만발전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을 약속한 양측은 저장성의 저장대학과 닝보대학, 목포대와 해양수산과학원 사이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수산양식 및 가공기술을 함께 발전시키자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국 최대 어시장인 저우산군제수산시장에 전남수산업체가 입점하는 방안을 타진,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지사는 23일 오전 귀국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27~36세</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동
02) 521-4405
호남지사 (63) 275-7766

www.dvtc.co.kr

초간단, 초간편! 물관리 자동화의 희소식!!

(주)대영 세계 최초 맞춤형 원격조정 MAS시스템 개발성공

기존 인터넷 회선 사용자의 PC에 CD만 넣으면 프로그램 연결완료

인터넷 1회선
MAS

통합관리실 프로그램 연결

현장 상황 CCTV
안내방송
기계동작소리 청취
상태감시
계측 및 제어

설치 가능 장소

- 펌프장
- 배수장
- 양만장
- 배수갑문
- 양수장
- 저수지
- 골프장
- 상하수도

특장점

- 시스템간의 쉬운 호환
- 일반업체가 케이블만 연결하면 공사완료
- 쉬운 유지관리와 비용절감
- 낙뢰, 통신두절시 자체 차단 및 복귀로 24시간 365일 관리 OK

NAVER 물관리자동화 | daeyoung 물관리자동화

062) 670-0300